

北魏시기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 연구

閔庚三*

<목 차>

1. 서 론
2. 서지정보
3. 高句麗 출신 근거
4. 사료적 가치
 - 4.1. <高道悅墓誌銘>의 例
 - 4.2. <夫人墓誌銘>의 例
5. 문장의 수사와 기교
 - 5.1. 文章의 전개 양상
 - 5.2. 典故 활용의 용례
 - 5.3. 文字의 布置
6. 書法의 미학적 가치
 - 6.1. 北魏 書法의 풍격
 - 6.2. 두 墓誌銘의 書法 풍격
7. 결 론

1. 서 론

北魏는 漢族이 아닌 북방의 鮮卑族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이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중심 축 역할을 하던 高句麗 출신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魏書》, 《北史》 등 역대 史書 속의 기록과 근세기에 출토된 墓誌銘, 墓碑 등 석각 문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石刻 기록 속 高句麗 계통이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史書에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 白石大學校 語文學部 부교수(asan2848@gmail.com)

들면 高肇 一家는 당시 高句麗에서 中原으로 이주하여 北魏의 정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었다. 그와 관련된 家系 인물들이 《魏書》, 《北史》 등 正史 속에 등장하고 있다. 그들의 행적을 담은 墓誌銘과 墓碑가 출토되어 正史의 기록을 교감, 보충할 수 있는 1차 원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魏文昭皇太后(高昭容)山陵誌銘, 高猛墓誌銘, 元瑛墓誌銘, 高貞墓碑, 高植墓誌銘, 高湛墓誌銘 등이 바로 그 예이다.¹⁾ 史書나 石刻자료 등의 문헌에 高句麗 혹은 古韓人 출신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어휘들이 있다. 地名을 반영한 것으로는 “樂浪”, “遼東”, “渤海”, “東夷” 등이다. 고대 “高句麗”의 영토였거나 혹은 중국의 역대 왕조들과 쟁탈을 반복하면서 그 누구의 땅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경계 지역이다. 姓氏로는 “高氏”, “王氏”, “公孫氏”, “似先氏”, “石氏”, “難氏”, “夫餘氏” 등이 있으며, 그 家系의 源流에 대하여는 殷 왕조의 “箕子” 혹은 “古朝鮮”과의 상관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자료는 北魏시기 高句麗 출신으로 추정되는 高道悅과 그 夫人인 李氏墓誌銘²⁾이다. 高道悅은 선대에 高句麗에서 중원으로 이주했거나 적어도 高句麗 변경에 있던 경계인이었을 것이다. 高道悅과 그 부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여러 史書 속에 등장한다. 이 둘의 墓誌銘은 기존 史書의 기록들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補史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당시의 墓誌銘 문체의 풍격과 정형화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서체 자형의 탐구를 통해 조형예술의 미적인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즉 두 墓誌銘에 보이는 장문의 구체적 기술은 기존 史書와 비교 검토를 통해 보충하고 교감할 수 있는 補史的 가치가 충분하며, 허사의 사용을 절제하며 간결하게 써내려간 墓誌銘 문체는 당시 북방문학의 풍격을 가능할 수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으며, 웅혼한 漢隸의 바탕 위에 예리한 方筆로 쓰인 書體는 북방의 기상을 나타내는 北魏의 전형적인 筆意로서 예술적 가치가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1) 민경삼, <中國 西北지역 출토 古韓人 金石文 연구>, 《중국어문논총》26집, 2004년, 97쪽.
2) <高道悅墓誌銘>의 原名은 “魏故散騎常侍營州刺史高使君墓誌銘”으로 아래에서는 <高道悅墓誌銘>으로 簡稱한다. 夫人 李氏의 墓誌銘은 原名이 “魏故伏波將軍司空中兵參軍高輝之太夫人墓誌銘”으로 아래에서는 <夫人墓誌銘>이라 簡稱한다.

2. 서지정보

<高道悅墓誌銘>와 <夫人墓誌銘>은 본 연구자가 山東石刻藝術博物館에서 직접 原石을 접하고 拓本을 구할 수 있었다. 본 두 墓誌銘의 선행 연구로는 秦公의 <釋北魏高道悅墓誌>³⁾, 賴非의 <北魏高道悅墓地調查及其墓誌補釋>⁴⁾, 呂宏偉의 <被忽視的李夫人——北魏高道悅夫人墓誌考>⁵⁾ 등이 있다. 하지만 선행 논문은 주로 출토 경위를 비롯한 서지사항과 서법 예술에 대한 서술로 제한되어 있다. 두 墓誌銘의 全文은 <신출토 北魏 高句麗 遺民 碑誌 4座 소개>⁶⁾에 근거한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자가 소장한 拓本에 의한 이 두 墓誌銘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高道悅 부부의 두 墓誌銘은 1969年 中國 山東省 德州市의 동북쪽 운하의 동쪽 언덕 二屯鎮 胡官營 四小隊村的 북쪽에서 한 관곽 속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이 두 墓誌銘은 현재 中國 山東省 濟南市的 山東石刻藝術博物館에 수장되어 있다.

北魏시기 墓誌를 附葬할 적에 일반적으로 각각 한 사람마다 墓誌와 蓋(墓誌의 뚜껑)가 있었으며, 부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두개의 墓誌石은 별도의 蓋가 없다. 高道悅 자신의 墓誌石이 자신 묘지의 蓋이자, 부인 墓誌石의 蓋로 사용된 것이다. 즉, 高道悅墓誌石 전면은 記事인 序와 銘文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墓誌銘이고, 뒷면은 “魏故散騎常侍營州刺史高使君墓誌銘”라는 墓誌銘 전체 명칭과 증조부, 조부, 부친의 관직명과 증조모, 조모, 모, 부인의 부친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자신의 墓誌石이 자신과 부인의 墓誌石의 蓋로 사용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3) 秦公, <釋北魏高道悅墓誌>, 《文物》, 1979, 09.

4) 賴非, <北魏高道悅墓地調查及其墓誌補釋>, 《德州考古文集》, 南昌, 百花州文藝出版社, 2000.

5) 呂宏偉, <被忽視的李夫人——北魏高道悅夫人墓誌考>, 《中國文物報》, 2017年3月.

6) 민경삼, <신출토 北魏 高句麗 遺民 碑誌 4座 소개>, 《신라사학보》6집, 247-263쪽, 2006.

<高道悅墓誌銘>의 원명은 “魏故散騎常侍營州刺史高使君墓誌銘”이다. 그 규격이 길이 82cm, 너비 83cm, 글자의 직경은 2.5cm이며 28행에 매 행 30자로 행간에 隔線이 있다. 별도의蓋가 없다. 본 墓誌銘의 뒷면에 墓誌銘의 전체 명칭이 있어 蓋 역할도 함께 한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剝락된 글자가 없다.

<夫人墓誌銘>의 원명은 “魏故伏波將軍司空中兵參軍高輝之太夫人墓誌銘”이다. <高道悅墓誌銘>보다 조금 크다. 정방형으로 길이 91cm, 너비 92cm, 글자의 직경은 2.5cm이며, 33행에 매 행 33자로 행간에 隔線이 있다. 별도의蓋가 없다. 부분적으로 문자가 剝락된 곳이 있으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일반적인 墓誌銘처럼 문장 구성이 墓主의 출신, 생평을 記事의 형태로 다룬 序와 그러한 것을 다시 운문의 형식으로 記誦한 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夫人墓誌銘>은 序와 銘文의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더한 後序가 있다. 당시 이러한 구조는 흔하지 않은 형식이었다.

두 墓誌銘 모두 神龜2年(519년) 2월 20일에 새겨졌으며, ‘撰, 書, 刻者’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 공간에서 함께 출토되었고, 문장 구성 방식과 문체의 풍격이 매우 흡사하며, 운필과 자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두 墓誌銘의 撰, 書, 刻者는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高句麗 출신 근거

渤海僭人이라 불리는 高氏들 가운데 자신 혹은 선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원으로 이주한 高句麗 출신이 적지 않다. 그들이 高句麗 출신이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가 있다. 史書, 墓碑, 墓誌銘 등의 문헌에 보이는 地名과 官職名 등이다. 중국학자 중에 姚薇元은 《北朝胡姓考》에서 “遼東 출신의 高氏는 본래 高句麗인이다.(遼東高氏, 本高麗人)”⁷⁾라 하였고, 羅新은 <五燕政權下的華

7) 姚薇元,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1958年, 270쪽.

北土族>에서 좀 직접적으로 “高道悅은 高句麗 후예로서 北燕의 高雲과 同族이다.(其本高麗後裔, 與北燕高雲是同族)”⁸⁾란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주장처럼 본 장에서는 高道悅이 高句麗 출신일 것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高句麗 출신에 대한 지명과 관련된 기록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西晉 말년 永嘉의 난 때 高句麗로 망명하였다가 北魏 때 중원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가진 高顧와 高撫의 후손인 高肇⁹⁾와 高崇¹⁰⁾의 일가의 예이다. 두 번째 선대에 遼東에서 歸魏하였다는 부류가 있으니, 高道悅¹¹⁾과 高頴¹²⁾같은 예이다. 세 번째, 조상이 高句麗인이란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高琳¹³⁾의 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대에 모두 지역적으로 遼東이나 또 다른 표현인 遼左에 왔다는 것이다. 즉 史書와 墓誌銘에 보이는 “遼東新昌人”이란 기록이 高道悅이 高句麗 출신이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墓誌銘에 高句麗 왕들이 받아왔던 “東夷校尉, 徐無侯”란 작위, “海右에 성씨가 드러났다(著姓海右)”, “명성이 海曲에 까지 높았다(聲高海曲)”, “이름이 두 나라에 드날렸다(名播二國)”, “東國에 찬란히 빛났다(翻光東國)” 등의 地名과 官職에 대한 기록도 그가 高句麗 출신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증이 될 수 있다.

墓誌石 출토지 또한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다.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石은 中國 山東省 德州市 二屯鎮에 출토되었다. 이곳은 清代 康熙~光緒년간에 高句

8) 羅新, <五燕政權下的華北土族>, 《國學研究》 第4卷, 133쪽.

9) 《北史·高肇傳》: “高肇, 字首文, 文昭皇太后之兄也. 自云本勃海蔭人. 五世祖顧, 晉永嘉中, 避亂入高麗. 父颺, 字法脩.” 《魏書·高肇傳》: “高肇, 字首文, 文昭皇太后之兄也. 自云本渤海脩人, 五世祖顧, 晉永嘉中避亂入高麗. 父揚, 字法脩. 高祖初, 與弟乘信及其鄉人韓內, 冀富等入國, 拜厲威將軍, 河間子, 乘信明威將軍, 俱待以客禮, 賜奴婢牛馬采帛. 遂納揚女, 是爲文昭皇后, 生世宗.”

10) 《魏書·高崇傳》: “高崇, 字積善, 渤海蔭人. 四世祖撫, 晉永嘉中與兄顧避難奔於高麗. 父潛, 顯祖初歸國, 賜爵開陽男, 居遼東, 詔以沮渠牧犍女賜潛爲妻, 封武威公主. 拜駙馬都尉, 加寧遠將軍, 卒.”

11) 《魏書·高道悅傳》: “高道悅, 字文欣, 遼東新昌人也. 曾祖策, 馮跋散騎常侍, 新昌侯. 祖育, 馮文通建德令. 值世祖東討, 率其所部五百餘家歸命軍門.”

12) 《北史·高頴傳》: “高頴字昭玄, 一名敏, 自言勃海蔭人也. 其先因官北邊, 沒於遼左. 曾祖暹, 以太和中自遼東歸魏.”

13) 《周書·高琳傳》: “高琳字季珉, 其先高句麗人也. 六世祖欽, 爲質於慕容廆, 遂仕於燕. 五世祖宗, 率衆歸魏.”

麗 출신의 北魏 文昭皇后 일가의 墓誌銘과 墓碑 4개가 출토된 곳이기도 하다.¹⁴⁾ 청말, 민국초기에는 高植, 高湛의 묘지와 高貞, 高慶의 墓碑를 “德州四高碑”라고 칭하였으며, 오늘날에는 高貞, 高慶의 墓碑와 <高道悅墓誌銘>을 “德州三高碑”라고 칭하였다.¹⁵⁾ 이러한 근거로 이곳은 高句麗 계통 귀족들의 무덤 군이라 추정한다. 康熙, 乾隆시기에 출토된 高植, 高湛의 墓誌石은 誌文만 전하고 원석은 유실되었으며, 嘉慶, 光緒시기에 출토된 高貞, 高慶 두 형제의 墓碑는 당시에 濕拓한 완전한 형태의 탁본이 전하며, 부분적으로 훼손된 원석은 자리를 옮겨져 山東省 濟南市的 山東石刻藝術博物館에 진열되어 있다. 바로 그들과 동시대 인물이자,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高道悅墓誌石과 그 夫人 墓誌石이 같은 곳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高道悅 또한 高句麗 출신 인물일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4. 사료적 가치

<高道悅墓誌銘>과 <夫人墓誌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補史의 부본에 있다. 아래에 補史의인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4.1. <高道悅墓誌銘>의 例

첫째, 高道悅 생평에 대한 보충이다. 高道悅은 《魏書》, 《北史》등 역대

14) <城北第三屯與北朝高氏碑刻>, 《德州晚報》: “康熙, 乾隆年間出土的高植, 高湛的墓誌已經遺失; 嘉慶, 光緒年間出土的高貞, 高慶的墓碑雖然殘破, 總算倖存了下來.”, 2012年11月14日.

15) <城北第三屯與北朝高氏碑刻>, 《德州晚報》: “清末與民國時期, 人們將高植, 高湛2盒墓誌與高貞, 高慶2幢墓碑合稱“德州四高碑”. 隨著高道悅夫婦墓誌的出土以及國家對它們文物價值的認定, 現在的人們又將被列爲國家一級文物的高貞, 高慶2碑和高道悅墓誌合稱“德州三高碑”, 2012年11月14日.

史書에 별도의 傳이 있기에 대략적인 생평은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墓誌銘의 역할은 미처 史書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생평과 사후 葬禮와 改葬 등 史書에 누락된 정보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墓誌銘의 기록에 따라 高道悅의 생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高道悅의 字는 文欣이고 遼東 新昌 安鄉 北里사람이다. 15세에 御史가 되고 主文中散을 거쳐 諫議大夫와 太子中庶子를 역임하니 北魏 孝文帝 太和원년(477년)부터 太和20년(496년)까지 仕路 20년이다. 사후에는 散騎常侍, 營州 刺史로 추증되어 시호를 “貞侯”라 하였다. 高道悅은 당시 太子였던 元恂과의 충돌로 그에 의해서 살해되었으니, 매우 비정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다. 死後 河南의 洛陽 땅에 묻혔다. 《魏書》와 《北史》 모두 高道悅의 생몰에 대한 기록은 없다. 墓誌銘에 “魏 太和20년 가을 8월 20일, 향년 35세”¹⁶⁾로 추정한다면 그는 北魏 文成帝 和平3년(462년)이 출생 년이다. 부인 李氏는 명문가 출신으로 조부, 부친 모두 고위 관직에 있었다. 부인은 北魏 獻文帝 天安2년(467년)에 태어났으니, 高道悅보다 6세 적다. 孝明帝 神龜원년(518년)에 사망하니 향년 51년이였다. 부인 사후 2년째 되는 해에 그의 아들 高輝는 부친 高道悅의 유해와 모친 李氏를 脩縣 崇仁鄉 孝義裡에 합장하였으니, 오늘날 山東省 德州市 德城區 二屯鎮 胡官營村이다.

둘째, 경제와 정치 개혁의 좌절, 그로 인한 피살 등에 대한 정보이다. 高道悅은 15세에서 35세 때까지 관직에 있으면서 北魏 정권에서 녹을 먹었다. 高道悅은 孝文帝의 정치, 경제적인 개혁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均田制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개혁과 平城에서 낙양으로의 천도 추진 등이다. 太子 元恂과의 심한 갈등과 그로부터의 피살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기득권층의 고관들은 수도 平城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들은 太子 元恂을 옹립하며 낙양 천도를 적극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적인 혁신에도 반대를 하였다. 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高道悅은 이러한 과정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墓誌銘에 “조정의 법과 제

16) <高道悅墓誌銘>: “以魏太和廿年秋八月十二日, 春秋卅五.”

도를 혁신하여 아홉 가지로 나누고, 관리 등용을 변혁하여 영재들을 선발하였다.”¹⁷⁾란 기록이 경제와 정치의 개혁의 입장에 섰다는 증거가 된다.

셋째, 문자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墓誌銘의 기록과 史書의 기록은 대부분 서로 부합하여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두 墓誌銘과 비교를 통하여 史書의 문자 오류를 바로 잡고, 가계와 관직 기록을 보충 하며, 위치에 대한 비정 등을 할 수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하나, 墓誌銘에 高道悅은 “나이 15세에 中書學生에 제수되었다.(年十五, 除中書學生)”에 ‘學生’의 ‘生’자가 《魏書》에는 ‘士’로 되어 있고, 《北史》에는 ‘生’으로 되어 있다. 墓誌銘에 근거하여 《北史》의 ‘中書學生’이 옳은 듯하다.

둘, 墓誌銘에 高道悅이 元恂에게 살해된 후에, 高祖가 그에게 “散騎常侍 謁冀州刺史”를 추서했다고 되어 있다. 《魏書》에는 ‘謁’가 ‘管’로 되어 있고, 《北史》에서 ‘謁’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墓誌銘에 근거하여 《北史》의 ‘謁’이라 해야 할 듯하다.

셋, 《魏書》와 《北史》에 高道悅 사후에 “舊塋에 장례를 하였다.(葬于舊塋)”고 되어 있으나, 舊塋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다. 墓誌銘에 高道悅이 冀州 渤海郡 徐縣에 장례하였다는 기록으로 舊塋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오늘날 山東의 德州에 위치한다.

넷, 《魏書》와 《北史》에 高道悅 가계의 관직에 대한 기술이 墓誌銘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史書의 부족한 부분을 墓誌銘의 기록이 보충해준다. 墓誌銘에 “조부는 東夷校尉徐無侯였다.”의 기록은 기존 史書에 빠져 있으며, “曾祖는 尙書僕射였다.”란 기록도 史書에는 “曾祖 策은 馮跋散騎常侍로 新昌侯였다.”¹⁸⁾라고만 되어 있어 “尙書僕射”란 기록이 빠져있다.

www.kci.go.kr

17) <高道悅墓誌銘>: “更新朝典, 拴品九流, 革易官第, 妙簡才英.”

18) <魏書·高道悅傳>: “曾祖策, 馮跋散騎常侍, 新昌侯.”

4.2. <夫人墓誌銘>의 例

첫째, 高道悅과 그 부인의 가계를 살필 수 있다. 史書에는 高道悅 부인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夫人墓誌銘>에 부인과 그녀의 가계 인물에 대한 실명이 등장한다. 이 단서로 史書에서 관계된 기록을 찾아 부인의 가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夫人墓誌銘>에 “墓主의 성은 李씨고, 高道悅의 처로 頓丘 衛國사람이며, “(墓主)는 顯祖 獻文 황제의 이종(內妹)간이며, 元恭 황후의 질녀”¹⁹⁾라 되어 있다. 顯祖 獻文 황제는 바로 北魏 獻文帝인 拓跋弘이다. <魏書·文成元皇后傳>에 “文成元皇后 李氏는 梁國의 蒙縣 사람으로 頓丘의 왕 峻의 누이이다. ……顯祖를 낳아 貴人이 되었다.”²⁰⁾란 기록이 있다. 墓誌銘과 史書의 기록으로 獻文帝的 생모 李氏는 頓丘 왕인 李峻의 누이이며, 高道悅 부인의 부친은 李峻의 아우이자 元皇后 李氏의 오빠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인 가계 인물들의 仕路를 살펴볼 수 있다. <夫人墓誌銘>에 “조부의 이름은 方叔으로 征東大將軍, 儀同三司, 頓丘獻王을 지내었다.”²¹⁾란 기록이 있다. <魏書·李峻傳>에 “(李峻)의 부친인 方叔은 劉義隆濟陰太守였다.”²²⁾라고 되어 있다. 조부 李方叔은 南朝시기 宋의 濟陰太守로 <夫人墓誌銘>에 기록된 “征東大將軍, 儀同三司, 頓丘獻王”으로 관직은 그의 여식이 元皇后가 되어 훗날 봉작되었을 것이다. 墓誌銘에 “부친의 이름은 携之로 使持節都督, 冀青定相濟五州諸軍事, 征南將軍, 啓府儀同三司, 冀青二州刺史, 彭城靜王을 지냈다.”²³⁾ “부인의 오빠 李平(李平)에 이르러 비로소 公(公)이 되었다.”²⁴⁾ 오빠 李平에 대한 기록은 史書에도 등장한다. <魏書·李平傳>에 “李平의 字는 曇定이고 頓丘사람으로 彭城王인 嶷의 장자이다.”, “(李平) 彭城公 작위를 받았

19) <夫人墓誌銘>: “顯祖獻文皇帝之內妹, 元恭皇后之季姪.”

20) <魏書·文成元皇后傳>: “文成元皇后李氏, 梁國蒙縣人, 頓丘王峻之妹也……及生顯祖, 拜貴人.”

21) <夫人墓誌銘>: “祖, 方叔, 征東大將軍, 儀同三司, 頓丘獻王.”

22) <魏書·李平傳>: “父方叔, 劉義隆濟陰太守.”

23) <夫人墓誌銘>: “父攜之, 使持節都督冀, 青, 定, 相, 濟五州諸軍事, 征南將軍, 啓府儀同三司, 冀, 青二州刺史, 彭城靜王.”

24) <夫人墓誌銘>: “至夫人兄平始降爲公.”

다.”²⁵⁾란 기록이 있다. 墓誌銘에서 그 부친의 이름을 “李携之”라고 기록한 반면 史書에서는 “이억(李嶷)”이라 하고 있으니, 墓誌銘으로 史書의 기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듯 墓誌銘과 史書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보충하고 교감할 수 있다.

셋째, 부인의 生沒과 葬地를 알 수가 있다. 墓誌銘에 따르면 高道悅은 太和 20년(496년)에 사망한다. 부인 이씨는 51세인 神龜 원년(518년)에 사망하였으니, 그녀의 출생년은 皇興 원년(467년)이다. 이 해는 부인 李氏의 나이는 겨우 29살에 불과했다. 墓誌銘에 “(부인 이씨)는 信都城의 武邑里에서 사망하고 西階에 빈장을 하고, 2월 초하루 辛亥일부터 20일 庚午에 脩縣의 崇仁鄉 孝義里에 묻었다.”²⁶⁾ 이에 근거하면 부인 李氏는 처음엔 信都(오늘날 河北省 冀州市)에 殯葬을 하고, 그 후 다시 脩縣 孝義裡으로 이장한 것이다. 이때는 神龜 2년(519년)이었다.

넷째, 자녀의 實名과 관직명을 알 수가 있다. 墓誌銘에 따르면 高道悅과 부인 李氏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장자는 高輝로 字는 顯族이며 관직은 右軍將軍에 이르렀다. 차자는 高琳으로 字는 敬猷이며 관직은 冠軍將軍, 滄州刺史에 이르렀고 子爵에 봉해졌다. 高道悅 부부의 두 墓誌銘에는 자녀와 손주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다시 그 자녀들의 배우자들의 가계에 대한 상관 자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 귀족 문벌들의 혼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高道悅 일가는 遼東 李氏, 遼西 李氏, 趙郡 李氏, 隴西 李氏 등의 명망가와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

25) 《魏書·李平傳》：“李平，字曇定，頓丘人也，彭城王嶷之長子。”，“襲爵彭城公。”

26) <夫人墓誌銘>：“葬於信都城之武邑裡，殯於西階。粵二月辛亥朔廿日庚午，遷葬於脩縣之崇仁鄉孝義里。”

27) <夫人墓誌銘>：“輝妻趙國李氏，祖牟，本郡太守，父槐，州主簿，頓丘太守，兄孝怡，新蔡太守，中堅將軍，鎮東府長使行本州事。輝長息元栗，字士約，年八，約妹遵□年六，輝弟琳，字敬猷，年廿九，襄威將軍員外散騎侍郎，琳妻清淵路氏，祖萇，本州主簿州都，父安和，督本郡，長息元直，字子信，年九，信弟仲言，字子正，年七，正弟叔貞，字子諒，年六，信妹字慎華，年八，輝妹字季令，適脩縣□□□，前任城王府水曹行參軍，祖欽同，州主簿，父蓋奴，本州別駕，長息明泰，年七，泰弟德含，年三，泰妹止妃，年六。”

5. 문장의 수사와 기교

明代 吳訥은 “墓誌는 사자의 世系, 생평 연월, 이름과 자, 벼슬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산천의 변화에 따른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이다.”²⁸⁾라고 하였다. 墓誌銘은 간략히 墓誌라고도 칭한다. 이는 슬픔, 애환의 추도성 문장의 체제로 死者의 생평을 기록하고, 다시 돌에 새기어 무덤 속에 함께 묻는다. 墓誌銘은 “誌”라 불리는 記事인 “序”와 “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誌”는 일반적인 사자의 성명, 선조 내력, 관직 등 생평을 산문의 형태로 기록함을 말하고, “銘”는 매구 사언으로 격구로 압운하며 “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歌頌하며 마무리하는 韻文이다. 이렇듯 墓誌銘은 서술과 가송으로 死者를 애도하고 찬미하며 생평의 사적을 기록하는 문장체제이다. 따라서 대다수 경우에 있어 死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과분한 찬사가 주를 이룬다.

5.1. 文章의 전개 양상

高道悅 부부의 두 墓誌銘은 문장의 형식과 내용의 전개가 당시 일반적인 墓誌銘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시 墓誌銘의 형식이 이미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내용 전개의 순서는 墓主의 이름, 출생일, 출생지를 먼저 서술하고, 다음 墓主의 家系에 대한 기술을 하며, 그 다음 墓主 유년시절부터 사망 전에 이르는 생평을 다룬다. 그 안에 墓主의 인품과 치적을 기록하고, 墓主의 사망일과 葬地를 기록하며 誌文을 마무리한다. 다음 銘文의 형식으로 매구 네 글자, 격구 압운을 하며 誌文을 압축하여 찬사를 더한다. 이러한 墓誌銘의 내용 전개와 형식은 이미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로 후대

28) [明] 吳訥, 《文章辨體序說·墓誌》: “墓誌則直述世系, 歲月, 名字, 爵里, 用防陵谷遷改.”

의 墓誌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墓誌銘에는 “撰書, 刻”자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니 후대의 墓誌銘과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高道悅 부부의 墓誌銘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당시에 보편화된 형태였지만 부분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 <高道悅墓誌銘>에 “옛날 太和년간에는 무덤 속에는 記文만 있고 銘文이 없었다. 오늘날 산천의 무덤이 뒤집어져 옮겨져서 아름다운 소리가 인멸할까 염려가 되었다. 이리하여 미담을 기술하여 땅 속에 밀어 넣게 되었다.”²⁹⁾고 하였다. 이것에 근거하면 高道悅의 처음 무덤에는 오직 記文만이 있었고, <高道悅墓誌銘>은 神龜2년(519)의 이장할 시기에 새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장할 적에 墓誌銘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은 北魏시기에 보기 드문 경우다. 墓誌銘에서 말하는 “太和之世”은 高道悅을 처음 묻었던 太和20년을 말한다. 高道悅 사망 후 처음 매장할 당시의 記文은 아마도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高道悅의 무덤임을 표시하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한다.

둘, 高道悅墓誌石 뒷면의 기록이다. 일반적인 墓誌銘에서 볼 수 없는 형식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뒷면이 “蓋”의 역할을 하면서 全名인 “魏故散騎常侍營州刺史高使君墓誌銘”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조부, 조부, 부친의 관직명과 증조모, 조모, 모, 부인의 원적과 부친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자신의 墓誌石 뒷면이 자신과 부인 墓誌石의 蓋로 사용되는 드문 경우이다.

셋, <夫人墓誌銘>의 전개 구조이다. 墓主의 성명부터 시작하여 사망 전에 이르는 생평, 사망일, 葬地 등을 다루는 記事인 序, 다음으로 매구 네 글자, 격구 압운의 銘文, 그리고 일반적인 墓誌銘의 양식에 잘 등장하지 않는 後序로 종결하고 있다. 後序에는 자녀들의 성명, 손주들의 성명과 나이, 자녀들 배우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로는 출신과 조상 중에 顯官인 부분을 기재하고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www.kci.go.kr

29) <高道悅墓誌銘>: “昔太和之世, 壙內有記無銘. 今恐川壘翻移, 美聲湮滅, 是以追述徽猷, 托晰壤陰.”

아들 輝의 字는 顯族이며 伏波將軍司空中兵參軍이다. 輝의 妻는 趙國李氏이며 조부는 牟本郡太守이고 父는 槐州主簿頓丘太守이며輝의 큰 아들 元乘의 字는 土約으로 나이는 여덟 살이고, 約의 여동생은 遵□으로 여섯 살이다. 輝의 아우는 琳으로 字는 敬猷이고 스물아홉살이며 襄威將軍員外散騎侍郎이다. 琳의 妻는 淸淵路氏로 조부는 菘本州主簿都이며(琳의) 큰아들은 元宜로 字는 子信으로 아홉 살이고, 信의 아우는 仲言으로 字는 子正이며 일곱 살이다. 正의 아우는 □貞으로 字는 子諒이며 여섯 살이다. 信의 여동생 字는 愼華이며 여덟 살이다. 輝의 여동생의 字는 季旻이며.....³⁰⁾

이처럼 <夫人墓誌銘>은 記事인 序, 다음으로 운문인 銘文, 마지막으로 자녀, 손자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後序로 종결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당시의 墓誌銘 가운데 흔하지 않았다.

5.2. 典故 활용의 용례

흔히 典故의 사용을 ‘用事’ 혹은 ‘事類’의 활용이라고도 한다. 이는 문장을 구성하는 수사법 중의 하나로 詩歌를 포함한 모든 문장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특징과 墓誌銘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본 墓誌銘의 典故 용례를 動態와 靜態, 어둡거나(暗態) 혹은 밝은(亮態)의 측면에서 그 이미지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본 두 墓誌銘의 문체가 悲哀에 중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讚美에 방점을 두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선 아래에 활용된 용례를 제시하며 이미지의 형태를 표시해보겠다.

5.2.1. <高道悅墓誌銘>에 나타난 용례

冠冕: 고관대작, 혹은 우두머리를 뜻한다. 출전은《三國志·魏書·王昶

30) <夫人墓誌銘>: “息輝字顯族, 伏波將軍司空中兵參軍. 輝妻趙國李氏, 祖牟本郡太守. 父槐州主簿頓丘太守,輝長息元乘字土約, 年八. 約妹遵□, 年六. 輝弟琳字敬猷, 年廿九, 襄威將軍員外散騎侍郎. 琳妻淸淵路氏, 祖菘本州主簿都.....長息元宜字子信, 年九. 信弟仲言字子正, 年七. 正弟□貞字子諒, 年六. 信妹字愼華, 年八. 輝妹字季旻,”

傳》：“今汝先人世有冠冕，惟仁義爲名。”，劉勰《文心雕龍·明詩》：“觀其結體散文，直而不野，婉轉附物，怛悵切情，實五言之冠冕也。”이다.(靜態, 亮態)

珪璋: 고대 조정에 알현할 때 몸에 지니는玉器로 인품이 고결함을 말한다. 출전은 《文選·辯命論》：“天才英偉，珪璋特秀.”이다.(靜態, 亮態)

生知: 천부적으로 자질이 높고 총명하고 영리함을 말한다. 출전은 《論語·季氏》：“生而知之者上也，學而知之者次也.”이다.(動態, 亮態)

器宇: 흉금, 의표, 기풍을 뜻한다. 출전은 《南史·梁簡文帝本紀》：“器宇寬弘.”이다.(靜態, 亮態)

青襟: 푸른 옷깃을 한 심의(深衣)로 고대에 학인(學人)들이 입던 복장으로 학자를 말한다. 출전은 《詩·鄭風·子衿》：“青青子衿，悠悠我心，‘毛傳：青衿，青領也。學子之所服.’”이다.(靜態, 亮態)

機鑒: 밝게 살필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출전은 《三國志·魏志·荀彧傳》：“荀彧清秀通雅，有王佐之風，然機鑑先識，未能充其志也.”이다.(靜態, 亮態)

昂藏: 의표(儀表)가 남다른 뜻을 뜻한다. 출전은 陸機 <晉平西將軍孝侯周處碑>：“汪洋闕之傍，昂藏寮窠之上.”이다.(靜態, 亮態)

二鮑: 후한시대의 鮑永과 鮑恢를 뜻한다. 출전은 《後漢書·鮑永傳》：“帝叔父趙王良尊戚貴重，永以事劾良大不敬，由是朝廷肅然，莫不戒慎。乃闢扶風鮑恢爲都官從事，恢亦抗直不避疆禦。帝常曰：‘貴戚且宜斂手，以避二鮑。’其見憚如此。”，晉葛洪《抱朴子·臣節》：“迫周勃之盡忠，準二鮑之直視。”이다.(靜態, 亮態)

銓品: 헤아려 평론하거나, 선발함을 뜻한다. 출전은 劉勰《文心雕龍·序志》: “或臧否當時之才, 或銓品前修之文.”, 《文選·任昉》: “公銓品人倫, 各盡其用.” 呂向의注: “各隨才而擢用之.”이다.(動態, 亮態)

九流: 선진시기 9개 학파에서 유래하여 각종 학술유파를 말하기도 혹은 9품의 인물을 뜻하기도 한다. 출전은 《南史·梁武帝紀》: “自今九流常選, 年未三十, 不通一經, 不得解褐.”이다.(靜態, 亮態)

儲闈: 太子가 거처하는 궁으로 태자를 뜻하기도 한다. 출전은 沉約 <奏彈王源>: “父璿, 升採儲闈, 亦居清顯.”, 唐 劉禹錫 <賀皇太子受冊箋>: “祗膺詔冊, 光啓儲闈.”이다.(靜態, 亮態)

梟鏡: 梟獍라고도 씀, 올빼미(梟)는 惡鳥로 태어나 어미를 잡아먹고, 獍은 惡獸로 태어나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그것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을 비유한다. 출전은 《漢書·郊祀志》: “祠黃帝用一梟破鏡, 孟康注: ‘梟, 鳥名, 食母; 破鏡, 獸名, 食父.’”이다.(靜態, 暗態)

徽猷: 훌륭한 방법 도리를 뜻한다. 출전은 《詩·小雅·角弓》: “君子有徽猷, 小人與屬”이다.(靜態, 亮態)

5.2.2. <夫人墓誌銘>에 나타난 용례

桑梓: 고향에 심겨진 뽕나무와 가래나무에서 유래해 고향을 뜻한다. 출전은 《詩經·小雅·小弁》: “維桑與梓, 必恭敬止.”이다.(靜態, 亮態)

軌憲: 법도를 뜻한다. 출전은 《晉書·孫盛傳》: “時盛年老還家, 性方嚴有軌憲, 雖子孫班白, 而庭訓愈峻.”이다.(靜態, 亮態)

立年: 30살을 뜻한다. 출전은 《論語·爲政》: “吾十有五, 而志於學. 三十而立. ……”이다. (靜態, 亮態)

玄鑒: 밝은 거울로 고명한 견해를 비유한다. 혹은 통찰함을 뜻한다. 출전은 《淮南子·脩務訓》: “誠得清明之士, 執玄鑑於心. 照物明白, 不爲古今易意. ‘高誘注: 玄, 水也; 鑑, 鏡也.’”, 晉葛洪《抱朴子·行品》: “夫惟大明, 玄鑑幽微.”이다. (靜態, 亮態)

孟母之徙里成軻: 맹모삼천지교를 뜻한다. 출전은 漢 趙岐의 《孟子題詞》: “孟子生有淑質, 幼被慈母三遷之教.”이다. (動態, 亮態)

孤孀: 과부를 뜻한다. 출전은 《山海經》: “吊死問疾, 以養孤孀.”이다. (靜態, 暗態)

墓誌銘은 死者를 추모하며 그의 인품과 덕행을 찬미하는 목적을 가진 문장이다. 死者라는 측면에서 암울한 暗態의 어휘나 전고의 사용이 많은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보다는 墓主의 인품과 덕행을 찬미하고자 밝은 형태인 亮態의 전고 사용이 많다. 아울러 死者의 행적에 관한 記事이기에 動態 보다는 靜態가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墓誌銘이라는 특수 목적을 띤 문장이기에 典故의 활용은 대부분 삶의 궤적을 반영한 靜態, 그 궤적 속에 드러난 우월한 이미지를 그린 亮態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文字의 布置

墓碑, 墓誌銘의 전반부 序 부분의 문체 혹은 문자의 포치는 글쓴이의 성향에 따라서 司馬遷의 《史記》와 같은 일반적인 산문형태인 古文體나 班固의 《漢

書》와 같은 駢儷文 풍격의 형태를 취한다. 다음 두 墓誌銘의 문자의 배열 형태를 살펴봄으로서 어떠한 문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3.1. <高道悅墓誌銘>

記事를 다룬 序 부분의 문자 포치³¹⁾:

…… 4, 4(世襲冠冕, 著姓海右). …… 4, 4. ……4, 4. ……4, 4. ……4, 4. 君6, 6(君稟河山之秀氣, 含晷電之神精)/ 7, 7(冲齡表岐疑之風, 綺歲招生知之譽)/ 4, 4/ 4, 4/ 4, 4/ 3, 3/ 3, 3(美清言, 善賞要)/ 4, 4/ 4, 4/ 4, 4, 5(氣韻蒼邁, 與白雲同翻)/ 4, 5. ……4, 4/ 4, 4/ 4, 4/ 4, 4/ 而4, 4/ 4, 4. ……4, 4. ……4, 4, 皆4, 4/ 4, 4/ 4, 4. 雖6, 6. ……4, 4. ……4, 4/ 4, 4. 既而4, 4/ 4, 4/ 4, 4. ……4, 4. 但4, 4/ 4, 4/ 4, 4. 君4, 4/ 8, 8(既殊潘崇饗羊之謀, 遂同陽原頭風之禍)……4, 4. ……4, 4/ 4, 4. 遂爲4, 4/ 4, 4. ……但4, 4. ……今恐4, 4. 是以4, 4.

銘文의 脚韻과 換韻:

銘文: ()안의 글자는 격구 脚韻. 네 번의 대구마다 換韻이 이루어져 있음.

4, 4(靈). 4, 4(英). 4, 4(明). 4, 4(馨). 4, 4(窺: 換韻). 4, 4(知). 4, 4(陂). 4, 4(藜). 4, 4(國: 換韻). 4, 4(則). 4, 4(德). 4, 4(墨). 4, 4(劭: 換韻). 4, 4(寶). 4, 4(鳥). 4, 4(道).

5.3.2. <夫人墓誌銘>

記事를 다룬 序 부분의 문자 포치:

…… 4, 4(皇化之初, 始歸桑梓). 7, 7(曾高播名於宋□, 父祖彰德於後魏). 4, 4. …… 公4, 4. 4, 4, 5/ 4, 5, ……乃4, 4, 5, 5. 夫人4, 4/ 4, 4, 及京王4, 4, 4, 4, 4, 4. …… 要4, 4, 遂4, 4, 4, 4. 7, 7, 7, 7. 6, 6(娣似仰其雍穆, 尊卑器其

31) 아래에 각각의 숫자는 구두가 이루어지는 한 개 구의 글자 수를 표시한다.

德行), 非8, 8(淮太夫人之所重愛, 亦是中外之所欽矚), 又4, 4/ 4, 4/ 4, 4. …… 夫人4, 4, 縱7, 7, …… 4, 4/ 4, 4. 4, 4/ 4, 4. …… 6, 6/ 6, 6/ 6, 6.

銘文의 脚韻과 換韻:

4, 4(長). 4, 4(張). 4, 4(王). 4, 4(楊). 4, 4(姜: 換韻). 4, 4(孀). 4, 4(方). 4, 4(饜). 4, 4(□: 換韻). 4, 4(收). 4, 4(抽). 4, 4(秋). 4, 4(□: 換韻). 4, 4(咽). 4, 4(竭). 4, 4(滅). 4, 4(堂: 換韻). 4, 4(央). 4, 4(鄉). 4, 4(□).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後序로 종결

息輝字顯族, …… 輝妻趙國李氏, …… 輝長息元栗字土約, …… 約妹遵□, …… 輝弟琳字敬猷, …… 琳妻清淵路氏, …… 長息元宜字子信, …… 信弟仲言字子正, …… 正弟□貞字子諒, …… 信妹字愼華, …… 輝妹字季令, …… 長息明泰, …… 泰弟德舍, …… 泰妹正妃…….

위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두 부부 墓誌銘 문자의 포치는 서술형 산문체보다는 압축적이고 규칙적 문자 구도를 가진 駢儷文 형태가 주를 이룬다. 문자의 대구 형태는 ‘美清言, 善賞要’의 예와 같은 3/3, ‘世襲冠冕, 著姓海右’의 예와 같은 4/4, ‘稟河山之秀氣, 含晷電之神精’의 예와 같은 6/6, ‘沖齡表岐疑之風, 綺歲招生知之譽’의 예와 같은 7/7 등 다양하다. 이는 墓誌銘이 가지는 특수 목적인 추모와 찬미를 駢儷文體의 풍격을 활용하되 다양한 문자 수의 대구 형태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복되고 있는 대구의 글자 수에 이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본 두 墓誌銘이 지닌 문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書法의 미학적 가치

붓으로 쓰여 지거나, 다시 돌에 새겨진 한자는 서체별, 시대별 다양한 형태와 풍격을 가지고 있다. 운필과 刻字를 통해 드러난 書法藝術은 시각적이고 구

체적인 조형예술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 방법은 철학적 사고와 미학적 분석에 따르는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北魏 문학작품의 수사와 풍격은 후대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北魏의 磨崖石刻, 碑碣, 墓誌銘, 造像碑 등 각종 石刻 자료에 대하여 淸 중기이후 書論家들은 매우 높은 예술적 평가를 하고 있다. 書法藝術³²⁾의 미학적 가치를 논할 때는 시대마다 주요 학자들의 입론이 절대적이다. 본 장에서는 書論家들의 北魏 墓誌銘에 대한 논평에 사용된 용어와 수사 방법을 취하여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살펴 보려한다. 즉, 北魏 石刻 예술에 대한 일반론과 그 바탕 위에 이 부부 墓誌銘의 예술적 특징에 대하여 논하겠다.

6.1. 北魏 書法の 풍격

北魏 정권 당시 남방과 북방의 정권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문체와 서풍도 매우 다른 양상이었다. 남방 정권은 자연스럽게 이전 쑤의 鍾繇와 二王(王羲之, 王獻之)의 서풍을 계승한 반면, 북방 정권인 北魏에서는 직접적으로 漢代의 예서, 북방의 웅혼, 민간의 질박함을 장점으로 가지게 되었다.

康有爲는 《廣藝舟雙楫》에서 “(北魏)孝文帝 이전에는 문학에 칭할만한 사람이 없었고, 묘비 판각에도 드러난 사람이 없었다.”³³⁾고 평하였듯이, 北魏의 문체와 서풍은 孝文帝 이후에 문장과 서풍에 변화가 일어난다. 孝文帝 이후의 변화란 것은 낙양 천도 이후의 지리적, 문화적 중심축의 이동에 기인한 것이다. 지리적인 중심축이 남방 정권과 가까워짐에 따라 남방의 문화가 일정 부분

32) 붓(毛筆)을 사용하여 문자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예술에 대하여 한, 중, 일 삼국은 서로 용어를 달리한다. 한국은 書藝, 중국은 書法, 일본은 書道이다. 물론 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함의는 다를 수 있다. 본장에서는 구체적 표현으로 書法藝術이라 명명하며, 단지 예술의 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書法이라 칭하겠다.

33) 《廣藝舟雙楫·備魏》 第10: “孝文以前, 文學無稱, 碑版亦不著.”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는 다시 “太和년간 이후 여러 서풍이 나왔으니, 기이하고 은일한 면은 <石門銘> 같은 것이 있고, 예스럽고 순박함은 <靈廟> 같은 것이 있으며, ……비교 조화로운 것은 <刁遵>, <司馬昇>, <高湛> 같은 것이 있다. ……”³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墓碑, 墓誌銘의 예를 들어 그 풍격을 논했다. 그 총평에 있어서 “(北魏 당시) 모든 석비를 통찰하여 보면 마치 崑崙山(群玉之山)을 노니는 것 같고 山陰의 길을 노니는 것 같으니, 무릇 후세의 모든 서체, 서풍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³⁵⁾라고 평을 하고 있다.

北魏 石刻 藝術의 독특한 미학적 특징은 복잡한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에 기인한다. 정치적으로는 북방의 鮮卑族과 그 주변 민족들이 함께 참여한 정권이며, 문화적으로는 북방 이민족 문화가 한족 문화에 점차 융화되어가던 과정이었으며, 지리적으로는 그 중심이 오늘날 山西省 太原에서 河南省 洛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 그들의 書法은 거칠고, 강인하고, 투박함에 바탕에 다소 세련된 풍격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清代 阮元은 <北碑南帖論>과 <南北書派論>에서 南帖을 낮추고 北碑를 높이는 주장을 하였고, 동시기 包世臣은 《藝舟雙楫》에서 北魏 서체에 대한 분석과 품평을 하며 평가를 하며 北魏碑를 높이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들의 영향 하에 康有爲는 北碑를 높이고 南帖을 낮추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서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든다면 조선의 金正喜는 스승 阮元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자신의 서론과 서체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한국의 근현대 서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清代 楊守敬(1839~1915)은 일본에 공사로 가게 되면서 일본의 서단에 北魏체 흥기의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³⁶⁾

34) 《廣藝舟雙楫·備魏》 第10: “太和之後, 諸家角出, 奇逸則有若<石門銘>, 古樸則有若<靈廟>……虛和則有若<刁遵>, <司馬昇>, <高湛>……”

35) 《廣藝舟雙楫·備魏》 第10: “通觀諸碑, 若遊群玉之山, 若行山陰之道, 凡後世所有之體格無不備, 凡後世所有之意態, 亦無不備矣.”

36) 민경삼, <秋史의 南派北派論연구>, 월간《書法藝術》, 1999년 02월~05월.

6.2. 두 墓誌銘의 書法 풍격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石이 땅속에 묻혔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대략 1400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 풍화나 인위적인 훼손을 입지 않았기에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당시 石刻 예술의 특징과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슬픔과 아쉬움, 추모의 정을 문장 속에 담아내고, 다시 붓과 칼날에 의하여 쓰이고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조형미를 담고 있는 시각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이 刻石된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刁遵墓誌>와 <李壁墓誌>가 전한다. 전자는 517년 후자는 520년에 刻石되었으니, 그 시차가 1년과 2년이다. 高道悅 부부 墓誌銘을 이 둘과 비교해보면 자형과 서풍이 대체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康有爲는 《廣藝舟雙楫》에서 <刁遵墓誌>를 精品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⁷⁾ 이것에 근거한다면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도 응당 精品에 들어갈 것이다. 康有爲 시절에는 이 두 부부의 墓誌石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康有爲에게 제대로 평가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康有爲의 北碑에 대한 평가를 高道悅 부부 墓誌銘에 대입하여 보겠다. “高道悅 부부의 두 墓誌銘을 높이는 이유는 단지 옛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필획이 완벽하고 정신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임모하기 쉬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隸書와 楷書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후세의 원류를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北魏의 高道悅 부부 墓誌銘이 모든 서체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이유이다. 필법이 넉넉하고 길게 새겨졌으며 웅혼하고 특이하게 돌출되어 맞이할 겨를이 없는 것이 실로 唐과 宋시대에는 없는 것이 다섯 번째 이유이다.”³⁸⁾ 이렇게 康有爲 말을 빌려 평가할 수

37) 《廣藝舟雙楫·碑品》第17: “今取南, 北朝碑, 爲之品列. ……精品下: <刁遵志>, <惠輔造像記>, <皇甫挺志>, <張黑女碑>, <高湛碑>.”

38) 《廣藝舟雙楫·尊碑》第2: “尊之者, 非以其古也. 筆劃完好, 精神流露, 易於臨摹, 一也; 可以考隸楷之變, 二也; 可以考後世之源流, 三也; 唐言結構, 宋尚意態, 六朝碑各體畢備, 四

있는 근거는 이 두 墓誌銘이 康有爲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刁遵墓誌>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³⁹⁾



北魏 서체의 자형과 풍격의 변화는 孝文帝의 낙양 천도를 기점으로 본다. 北魏의 분열 이전의 서체는 漢代 예서에서 唐代 해서로 넘어가는 교량적,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즉, 秦漢 시대의 小篆과 隸書 형태가 아니며, 魏晉 시기의 二王 풍격의 楷書도 아니다.⁴⁰⁾ 高道悅 부부 墓誌銘은 창작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書法의 풍격도 당시의 이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주요 특징으로는 측봉(필획인 약간 기울어짐)과 方筆(점과 획이 모가 남)로 이

也；筆法舒長刻人，雄奇角出，迎接不暇，實爲唐，宋之所無有，五也。有是五者，不亦宜於尊乎。”
 39) <그림 1> 참조.
 40) 《廣藝舟雙楫·體變》 第4: “北碑當魏世，隸，楷錯變，無體不有。綜其大致，體莊茂而宕以逸氣，力沉著而出以灑筆，要以茂密爲宗。當漢末至此百年，今古相際，文質斑斕，當爲今隸之極盛矣。”

루어졌으며, 起筆(운필의 시작)과 收筆(운필의 마침)이 모두 축급하게 축봉으로 이루어졌다. 파임이 厚重하고, 안쪽은 둥글지만 밖은 모가 났으며, 拙朴하며 웅혼한 기세가 있다. 이러한 풍격과 특징은 당시 北魏의 磨崖石刻, 碑碣, 墓誌銘, 造像碑 등 각종 石刻物에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다시 그의 말을 빌리면 “글자의 안쪽은 뻣뻣한 반면 바깥쪽은 성긴 느낌이 있고, 자유롭고 넉넉하며, 크고 작음은 일정하지 않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 서체 변화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서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의 서체는 漢代 예서와 唐代 해서가 서로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체의 특징이 예서와 해서의 경계 있어 각종 변화가 생겨나 北魏 서체의 독특한 풍격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⁴¹⁾고 할 수 있다.



41) 《廣藝舟雙楫·體變》 第4: “北碑當魏世, 隸楷錯變, 無體不有. 綜其大致, 體莊茂而宕以逸氣, 力沉著而出以灑筆, 要以茂密爲宗. 當漢末至此百年, 今古相際, 文質斑斕, 當爲今之隸之極盛矣.”

康有爲는 魏碑에 대하여 열 가지 아름다움(十美)으로 품평하였다.⁴²⁾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의 심미적인 특징을 康有爲 十美論의 언어로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도 있다.

첫 번째, 氣勢의 雄壯함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묘사는 다분히 추상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書家들과 역대 書論家의 공통적으로 北魏 서법예술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이 두 墓誌銘의 풍격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 기세의 웅장미라고 정의한 것은 운필과 결구 속에 드러난 기세와 기상이 혼후하고, 그 내면에 담고 있는 정신이 역동적임을 말한다. 北魏 墓碑의 서법은 멀리는 漢代의 隸書의 풍모와 가까이는 魏晉시기 鍾繇, 二王의 풍격을 계승하면서 변화를 주었다. 그 변화의 특징이자 장점 중이 하나가 “質朴”과 “飄逸”이라 할 수 있다. 운필과 결구에 있어서 예서의 필법과 필의를 품고 있으면서, 魏晉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飄逸의 풍격을 가지고 있다. 方筆의 웅장함과, 圓筆의 혼후함 속에 혼백의 담대함이 있으며, 자연스럽고 평이함 속에 순박함이 보인다. 書家들이 흔히 말하는 성기고 뻑뻑하고 비고 짙 찬(疏密虛實)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짙 찬(實) 곳은 막히지 않고 빈 곳(虛)은 뜨지 않아 혼후하고 성대하여 생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運筆의 아름다움이다. 운필이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점과 획이 준엄하고 심후하며 沒骨法에 빠진 듯 풍만함이 살아 있다. 이러한 운필법은 渾厚함을 전제로 한다. 다소 걸끄러운 느낌 속에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어, 강약의 리듬이 있는 듯하다. 점과 획의 준엄함 속에 운필의 옹혼함이 잘 드러나 있고, 심후함 속에 힘과 기세가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 내면의 형태가 뻑뻑하지만 전혀 답답하거나 막히지 않았고, 외형이 성글지만 약하거나 무르지 않다. 때론 원필, 때론 방필의 형태로 강건하고, 진중하며, 생동감이 있다.

세 번째, 結構의 均衡美이다. 매 글자의 매 획만을 떼어 내어 본다면 혹은

42) 《廣藝舟雙楫·十六宗》 第16: “古今之中, 唯南碑與魏碑爲可宗. 可宗爲何? 曰: 有十美: 一曰魄力雄強, 二曰氣象渾穆, 三曰筆法跳越, 四曰點畫峻厚, 五曰意態奇逸, 六曰精神飛動, 七曰興趣酣足, 八曰骨法洞達, 九曰結構天成, 十曰血肉豐美. 是十美者, 唯魏碑, 南碑有之……備衆美, 通古今, 極正變, 足爲書家極則.”

모가 나고, 혹은 너무 길거나 짧기도 하다. 혹은 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혹은 획이 많거나 적기도 하다. 常規에 벗어난 듯한 각각의 필획이 하나의 완성된 글자로 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울려 새로운 均衡美가 생긴다. 이점은 문자의 規範化, 標準化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류이자 혼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형성을 추구하는 미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美에 대한 추구이자 새로운 음의 발견이다.

康有爲의 北魏碑에 대한 품평의 언어는 高道悅과 그 夫人 墓誌銘 평가에 대한 심미적 기준이 될 만하다. 그의 논평과 정의는 이 두 墓誌銘을 포함한 많은 우수한 北魏碑에 대입할 수 있다. 高道悅 부부 墓誌銘은 당시의 墓碑, 摩崖, 造像記 등과 그 의도, 목적, 조건이 다르기에 그 특징과 풍격이 일반 石刻物과 다른 점이 있다. 墓碑와 摩崖는 대체적으로 큰 붓으로 운필을 해야만 그 규모와 규격을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웅혼하고 장엄한 기상이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반면 墓誌銘은 小筆 혹은 細筆로 운필하여 행간을 작은 글씨로 채워야 하며, 刻石에 있어서도 매우 정밀함이 요구된다. 매 글자, 매 획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조심스러움과 공손함이 내재되어 있다.⁴³⁾

7. 결 론

北魏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던 轉折의 시기로 학술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漢族 정권이 아닌 북방 이민족이 세운 왕조이기에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와 교류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이었으며, 주변국의 遺民 흡수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자료는 北魏시기 高句麗 출신으로 추정되는 高道悅과 그 夫人의 墓誌銘이다. 이 두 墓誌銘은 北魏시기 다른 墓誌銘들처럼 문장을 짓고, 옮겨 쓰고, 석판에 새긴

43) '6.2. 본 두 墓誌銘의 書法 풍격' 부분의 도편은 <그림 2> 참조.

자의 姓名이 기록되지 않았다. 墓地의 유실을 방지하고, 고인의 덕행을 기리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이었기에 撰書刻한 이의 성명을 드러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소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지정보를 통하여 出土處와 현재 所藏處를 포함한 두 墓誌石의 특징에 대하여 밝혔다. 地名과 官命, 출토지에 근거하여 高道悅은 선대에 高句麗에서 중원으로 이주했거나 적어도 高句麗 변경에 있던 경계인이었을 것이라는 단서를 소개하였다. 다음 사료적 가치, 문학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사료적인 면은 기존 史書의 기록들을 교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補史的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高道悅 부부의 생평과 家系, 개혁의 좌절과 피살, 墓地의 이장, 史書의 文字 校勘과 보충이 이에 해당한다. 문학적인 면은 당시의 墓誌銘 문체의 풍격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피었다. 즉, 문장의 전개과정, 전고의 활용, 文字의 포치와 관련된 문장의 구조와 풍격 등을 살피었다. 예술적인 면은 서체 자형의 풍격과 운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조형예술의 미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書法藝術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탐구로서 北魏 書法藝術의 일반적인 풍격을 소개하고, 書論家들의 北魏 墓誌銘에 대한 논평에 사용된 용어와 수사 방법을 취하여 北魏 墓誌銘인 高道悅과 그 夫人墓誌銘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살피어왔다.

< 參考文獻 >

- [北齊]魏收, 《魏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李延壽, 《北史》, 北京: 中華書局, 1974.
 [唐]令狐德棻, 《周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房玄齡,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宋]司馬光,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92.
 [明]吳訥, 《文章辨體序說·墓誌》, 人民文學出版社, 1962.
 [清]康有爲, 《廣藝舟雙楫》, 《續修四庫全書》本, 上海古籍出版社, 2002.
 [清]王昶輯, 《金石萃編》, 清嘉慶十年刻同治錢寶傳等補修本, 中國書店, 1985年.

- [清]陸增祥, 《八瓊室金石補正》, 文物出版社, 1985.
- 姚薇元, 《北朝胡姓考》, 北京: 中華書局, 1958.
- 王銀田, <元淑墓誌考釋——附北魏高琨墓誌小考>, 《文物》, 1989.
- 洛陽文物工作隊, 《洛陽出土歷代墓誌輯繩》,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 羅新, <五燕政權下的華北土族>, 《國學研究》第4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 羅新·葉煒,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5.
-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高道悅墓誌字帖》, 山東美術出版社, 2008.
-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高道悅夫人李氏墓誌字帖》, 山東美術出版社, 2008.
- 仇鹿鳴, <攀附先世与偽冒土籍: 以渤海高氏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年02期.
- 張鵬, <北朝墓碑文與墓誌的文體比較>, 《河西學院學報》, 2015.
- 呂宏偉, <被忽視的李夫人——北魏高道悅夫人墓誌考>, 《中國文物報》, 2017年3月.
- 민경삼, <秋史의 南派北派論연구>, 월간《書法藝術》, 1999년 02월~05월.
- 민경삼, <中國 西北지역 출토 古韓人 金石文 연구>, 《중국어문논총》 26집, 2004.
- 민경삼, <신출토 北魏 高句麗 遺民 碑誌 4座 소개>, 《신라사학보》 6집, 2006.

< Abstract >

A Study on the Inscriptions of Go, Doyeol and His Wife in Beiwei Dynasty

Min, Gyungsam

The Dynasty of BeiWei(北魏) has made great changes in the history of East Asia, and it is also very valuable in academic history. Since the dynasty was founded by the Northern immigrants, not by the Han(漢) Chinese regime, it was very dynamic in relations and exchanging with neighboring peoples, and it was not very resistant to the absorp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data that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the epitaph of Go, Doyeol(高道悅) and his wife who are presumed to be from Goguryeo(高句麗) in the BeiWei period. These two pieces of epitaphs were not recorded, as were the other signs of the writing,

transcribed, and carved on the stone. Because it was the original purpose of defending the loss of the graveyard and honoring the virtue of the deceased, it would not have made much sense to reveal the name of the person who wrote it.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things we have introduced. First of all, we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areas, including the originator and current collection place through bibliography. Based on the name of the place, official name, and place of origin, the research introduced a clues that could be assumed to have migrated from Goguryeo to China or were at least vigilant at Goguryeo. The following analyzes were conducted in terms of historical value, literary value, and artistic value. As the historical value, the research was reviewed to identify the records of the existing librarian and to fill the gaps. It is about the life review and the family system of the Go, Doyeol family, the frustration of the reform and the killing, the moving of the cemetery, the text correspondence and supplement of the history book. In the literary value, we examined the style and formalization of the epitaph sentence style at that time. In other words, it was looked at the development of sentences, the use of the idioms, and the customs of sentences related to character's poach. As for artistic values, it was examined aesthetic aspects of sculpture art through the landscape of calligraphic shapes and exploration of meteorology. As a research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calligraphic arts, I introduced the general style of the BeiWei calligraphic arts and take the terms used in the commentary on the BeiWei epitaph of the writers and the methods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se two pieces of epitaphs can provide a variety of primitive data for the study of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Inscription, Epitaph, BeiWei, Go Doyeol, Goguryeo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1. 2	2018. 11. 15	2018. 11. 17	2018. 11. 27	2018. 12. 31